

# 영·한 피동구문 분석: 제약기반이론적 접근\*

이남근

(조선대학교)

Lee, Nam-geun. 2005. A Constraint-based Analysis on English and Korean Passive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227-247.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properties of Korean passive construction and provides a constraint-based analysis within HPSG. The paper shows the importance of interfaces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in Korean passive constructions and proposes a lexical-rule based approach for syntactic passives as well.

주제어(Key Words): passive, interface, lexical-rule, constraint-based

## 1. 서론

피동구문이란 능동문의 피동주, 즉 피해자(patient)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로 모든 언어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피동구문의 술어는 능동구문의 술어와 그 형태와 논항 위치의 차이로 문법기능의 교체 현상으로 간주되어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핵어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등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변형 문법적 입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어휘론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sup>1)</sup>. 특히 최근에 전산학적 유용성과 언어학적 유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에 비추어볼 때 한국어 피동문을 유형화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언어학적으로나 전산학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피동구문의 기본 현상을 고찰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언어

---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다만 김종복(2004)이 최근에 한국어 구구조문법에 대하여 쓴 저서가 있다.

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동구문의 현상을 제약기반 이론의 하나인 HPSG 이론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영어 피동구문

### 2.1. 영어 피동구문의 속성

다음 (1)의 예문에서와 같이 피동구문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하며, 능동문의 주어가 by전치사구로 실현된다. 이 경우 동사 형태의 변화도 수반한다.

- (1) a. The lines were written by one of Korea's most famous poets.
- b. One of Korea's most famous poets wrote these lines.

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사 형태가 'be + passive participle' 형태를 띠고 있다.

- (2) a. The ball was kicked.
- b. Stefan was annoyed.
- (3) \*John has been 

take
took
taking

 to the library.

(2)의 예들은 동사의 형태가 문법적인데 반하여 (3)의 경우는 비문법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동구문에서 동사의 형태가 'be+passive participle'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사의 목적어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 (4) a. John has been taken to the library.
- \* John has been taken Bill to the library.
- b. John has been chosen for the position.
- \* John has been chosen Bill for the position.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 형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능동문의 목적어가 허사이면 피동문의 주어

도 허사라야 한다. (5a)는 (5c)에서, (5b)는 (5d)에서 도출된 것이다.

- (5) a. It/\*Stefan is believed to be easy to annoy Fred.
- b. There/Stefan is believed to be a dragon in the wood.
- c. They believed it/\*Stefan to be easy to annoy Fred.
- d. They believe there/Stefan to be a dragon in the wood.

둘째로, 능동문 동사의 목적어가 절이면 상응하는 피동문의 주어도 절이어야 한다.

- (6) a. That he is a fool is believed/\*kicked by everyone.
- b. Everyone believes/\*kicks that he is a fool.

셋째로, 능동문 동사의 목적어가 숙어 일부분이면 피동문의 주어도 동일하게 숙어의 일부여야 한다.

- (7) a. The cat is believed to be out of the bag.
- b. They believe the cat to be out of the bag.

피동구문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중의 하나는 능동문과 피동문간 밀접한 의미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8) a. The dog bit the cat.
- b. The cat was bitten by the dog.
- (9) a. TV puts ideas in children's heads.
- b. Ideas are put in children's heads.

예문 (8), (9)에서 보듯이 피동문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이면서 피동주의 의미역을 갖는다. 그리고 능동태 주어의 행위주는 수의적으로 피동태의 전치사구로 나타난다. 결국 피동구문에서 주어는 반드시 피동주로만 실현된다.

피동문과 능동문의 하위범주화 제약이 기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구문 간에는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다음 (10)의 예에서처럼 'hand'라는 동사가 갖는 논항은 3항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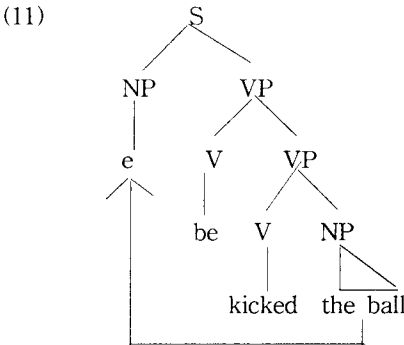
- (10) a. \*Pat handed Chris.
- b. \*Chris was handed (by Pat)
- c. Pat handed Chris a note.
- d. Chris was handed a note (by Pat).

따라서 (10a, b)가 비문인 것은 (10b, d)와 달리 2항술어 문장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법은 피동문의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요약해 보면 1)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2)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by NP'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3) 하위범주화 정보를 변화시키지 말아야 하며 4)의미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면서<sup>2)</sup> 5)동사 형태의 변화도 명시해야 한다.

## 2.2. 제약기반 이론적 분석

영어의 피동구문은 전통적으로 변형규칙을 도입하여 분석해 왔다. 이를 간략하게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동분사 'kicked'가 목적어 'the ball'에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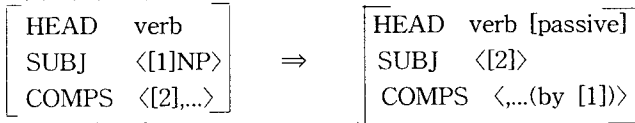
2) 다음과 같은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은 예외적이다. 양화사의 영역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의미적 차이가 있다.

- (i) Many arrows didn't hit the target.
- (ii) Everyone in the classroom speaks two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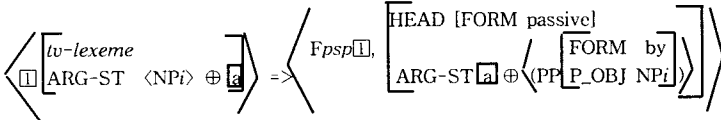
을 할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격을 할당받기 위해서 주어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통사적 현상에만 의존하며 의미적 관련성이나 예외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영어의 피동구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Pollard & Sag (1994)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휘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12) 피동어휘규칙(Passive Lexical Rule)



(13) 피동어휘규칙(ARG-ST version)



위 (12)의 규칙은 피동문의 논항변화에 따라 (13)의 규칙으로 수정 되었다. 이들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입력부의 동사 형태가 출력부에서는 피동형태의 단어를 갖게 되고 출력부에 새로운 PP가 도입되어 논항의 재정리가 일어나 항가자질의 값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동문 동사가 할당하는 주어의 지표 값(INDEX value)은 피동문에서 PP[by]가 할당하는 지표 값과 같다. 다시 말하면 능동문이나 피동문의 논항이 갖는 의미역(semantic role)은 입력부나 출력부에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13)의 규칙이 보여주는 것은 격(CASE)값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a.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b. \*Him was arrested by the police.

(15) a. Him being arrested by the police upset many people.

b. \*He being arrested by the police upset many people.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주어의 의미값은 피동동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격은 그렇지 않다. (14)의 주격은 보조동사 'was'에 의해서 할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의 경우 반듯이 보조동사에 의존하여 주격이 주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경우 동사의 비주어 논항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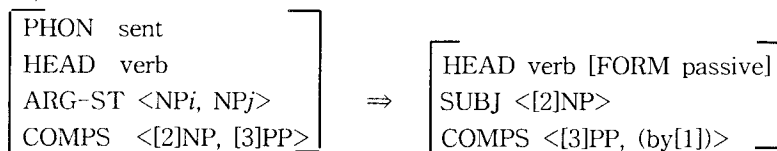
대격(accusative)를 갖고 있고 주어의 경우는 특별한 문법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13)의 규칙은 이를 미명세 해둠으로서 보다 일반화를 포착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동어휘규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16) a. John sent Stefan to Seoul.

b. Stefan was sent to Seoul.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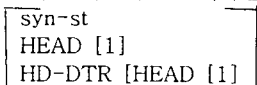
(16a)와 (16b)의 문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의 피동어휘규칙에 따라 (17)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 피동동사 'sent'는 보충어로 [3]PP만을 요구하여 결합한다. 이는 핵어-보어 규칙(head-complement rule)을 따른 것이다. 주목할 것은 (16b)를 얻기 위해서 (17)만으로 되지 않고 be동사의 어휘정보가 필요하다. 이 be동사의 어휘정보를 살펴보면 다음 (18)과 같다.

(18)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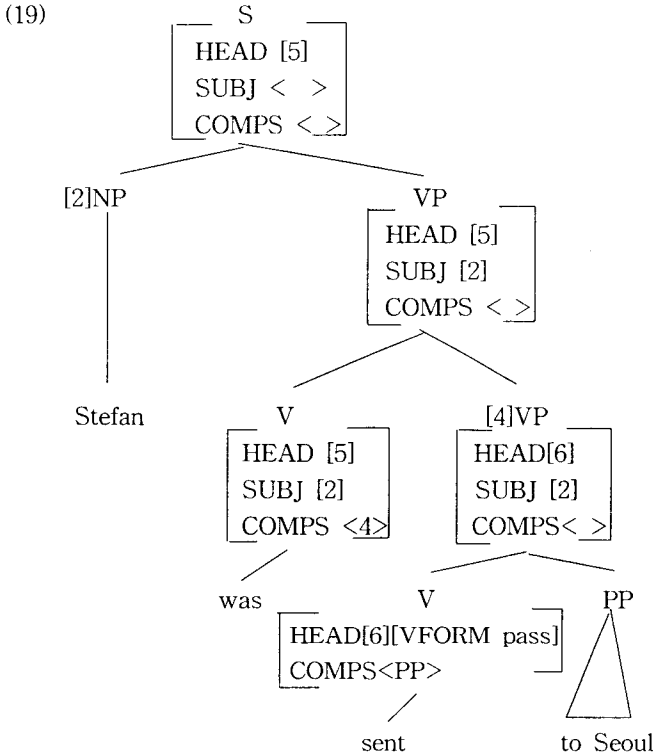


위의 (18)이 의미하는 것은 피동문의 be동사는 논항으로 주어와 VP[passive]를 취하고 자신의 보어인 VP의 SUBJ값과 자신의 SUBJ값이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be동사를 주어-인상동사(subject-raising verb)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16b)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19)와 같다. (19)의 수형도를 살펴보면 우선 핵어자질원리<sup>3)</sup>(Head Feature Principle, 이하 HFP)를 준수하여 핵어자범주의 HEAD값이 모범주의 HEAD값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SUBJ와 COMPS의 값은 항가원리<sup>4)</sup>(Valence Principle,

3)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핵자질 HEAD값들이 모범주로 투영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하 VALP)를 지켜서 포화(saturation)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어 'sent'가 갖는 HEAD값은 모범주 'sent to Seoul'의 HEAD값으로 투영되고 'was'역시 모범주의 HEAD 값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은 HFP 때문이다. 또한 향가원리에 따라 'sent'가 보충어로 'to Seoul'를 취해서 모범주 VP의 COMPS값을 비게 한다. 마찬가지로 'was'는 보충어로 [4]VP를 취해서 모범주 VP의 COMPS가 비게 되고 이 VP는 다

4) 이 원리에 관한 제약은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에서의 함수적용과 유사하게 핵어 표현이 향가 정보인 .SUBJ나 COMPS와 결합했을 때 향가 정보가 만족되어 취소되는 기능을 한다.

향가원리:

구 표현의 향가 자질 F(SUBJ, COMPS)는 자신의 핵어 표현이 취하는 F값에서 충족된 F자질을 뺀 값과 같다.

시 [2]NP를 취해서 완전 포화를 이룬다. 여기서 ‘was’는 [2]NP와 [4]VP를 논항으로 취하고 [4]VP의 주어는 자신의 주어 [2]NP와 공지시 하고 있다.

이처럼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휘정보와 몇 가지 제약과 규칙으로 모든 문장을 성명하려는 것이 제약기반 이론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은 비문을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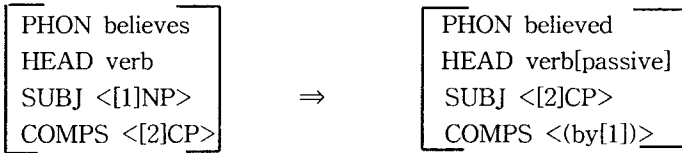
- (20) a. \*That John was ill was sent to Bangor.
- b. \*They sent that John was ill to Bangor.

‘sent’동사구 주어가 (18)에서 보듯이 자신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20a)의 경우 ‘sent’의 주어는 절이 될 수 없다. 즉 이는 be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21)의 예를 살펴보자. 이는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 (21) a. They believed that John was ill.
- b. That John was ill was widely believed.
- (22) a. Someone has decided which attorney will give the closing argument.
- b. Which attorney will give the closing argument has been decided.

(23)



(21)의 문장은 ‘believe’가 that 절을 목적어로 취하고 (22)는 ‘decide’가 의 문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이다. 이들 역시 (17)의 피동어휘규칙에 따라 (23)을 얻게 되므로 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문장이 피동문이 되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 셈이다.



### 2.3. 통사부와 의미부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여 피동문이 되는 경우를 분석했다. 그러나 비록 목적어를 취하지만 피동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hold', 'possess', 'resemble', 'contain' 등과 같은 동사는 목적어 NP를 취하지만 피동문이 될 수 없다. 다음 (24), (25)를 보자.

- (24) a. The jar holds oil.  
 b. \*Oil is held by the jar.
- (25) a. The king possessed great wealth.  
 b. \*Great wealth was possessed by the king.

그러나 이들 동사가 항상 피동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음 (26)은 (24b)와 (25b)와 달리 피동문이 가능한 경우다.

- (26) a. The thief was held by the police.  
 b. The city was soon possessed by the en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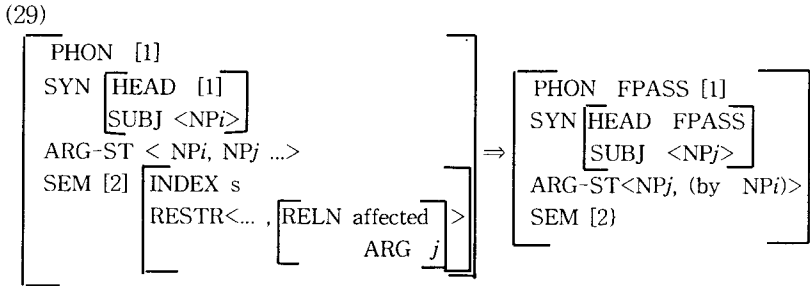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보면 통사적 구조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피동문의 가능성은 의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이 'grow', 'weigh'와 같은 동사도 일반적으로 피동이 성립되지 않지만 가능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 (27) a. \*A pound was weighed by the book.  
 b. \*Six inches were grown by the boy.
- (28) a. The plums were weighed by the greengrocer.  
 b. The beans were grown by the gardner.

이들 피동구문이 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의미적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피동문의 주어가 피동주이면서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즉 피동문의 주어는 반듯이 "affected"된 피동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7)의 주어 'a pound'나 'six inches'는 'the book'나 'the boy'에 의해 동사 'weigh'나 'grow'로부터 영향을 받는 피동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8)의 'the plums'나 'the beans'는 각각 청

과물상인이나 정원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무게를 제거나 성장된) 피동주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동사가 피동문이 되려면 의미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피동어휘규칙을 다음 (29)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29)의 수정된 피동어휘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부의 목적어가  
“affected”되어야 출력부의 주어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해 준다. 이와 같이 피  
동구문의 형성은 통사부와 의미부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영어의 피동구문의 기본 속성에 따라 제약기본 이론 내에서 이들  
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가를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  
피동구문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3. 한국어 피동 구문

한국어 피동문은 능동문의 피동주(patient)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로 크  
게 접미사 피동문, ‘지다’ 조동사에 의한 피동문, ‘되다, 받다, 당하다’와 같  
은 동사에 의한 경동사류 피동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5) 다음 (i) (ii)와 같이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유사피동구문  
도 있으나 언어학적 유의성 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 여기서는 다  
루지 않는다.

(i) 날씨가 풀리었다. -> \*날씨를 풀었다.

(ii)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말  
문을 막을 지경이다.

### 3.1. 접미사 피동문

접미사 피동문은 다음 예문처럼 피동 접사(suffix) ‘이, 히, 리, 기’에 의해 능동형 동사가 피동형 동사가 되면서 논항의 문법적 역할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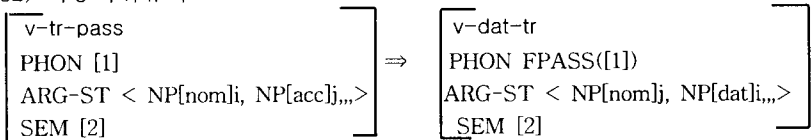
- (30) a. 영희가 철수를 들볶았다. -> 철수가 영희에게 들볶이었다.
- b. 영희가 철수를 잡았다. -> 철수가 영희에게 잡히었다.
- c. 개가 철수를 물었다. -> 철수가 개에게 물리었다.
- d. 영희가 철수를 쫓았다. -> 철수가 영희에게 쫓기었다.

즉 능동문 행위자 주어는 여격 논항으로, 능동문의 피행위자 목적어는 주어로 승격되는 2항술어가 된다.<sup>6)</sup> 이들 네 가지 접미사 중 어떠한 접미사가 사용되는가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마지막 음운적 환경에 따라 구분되지만, 공통점은 피동주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접미사 피동이 적용되는 타동사를 살펴보면 다음 (31)과 같다.<sup>7)</sup>

- (31) a. ‘이’ 피동적용: 들볶다, 놓다, 보다, 덮다,...
- b. ‘히’ 피동적용: 잡다, 업다, 읽다, 먹다, 묻다,...
- c. ‘리’ 피동적용: 물다, 자르다, 끌다, 누르다, 부르다, 듣다,...
- d. ‘기’ 피동적용: 쫓다, 안다, 믿다, 빼앗다, 당다,...

이와 같은 접미사 피동은 한정된 어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휘적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sup>8)</sup>

(32) 피동어휘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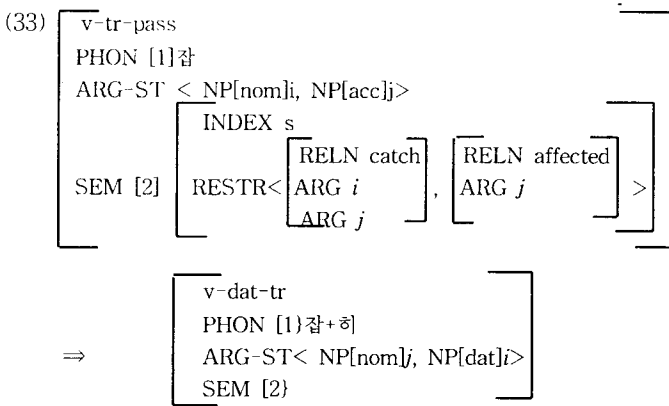


6) 피동화 과정에서 의미부의 주제화나 초점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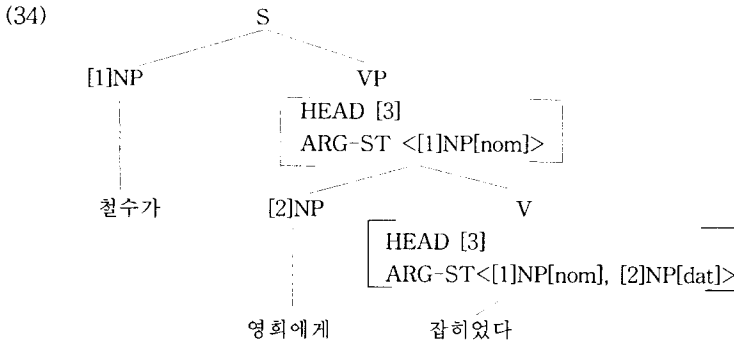
7) 아래 동사들은 모두 타동사 v-tr의 하위유형이다. 모든 v-tr이 피동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v-tr은 다시 v-tr-pass와 v-tr-nonpass로 나누어진다.

8) F PASS는 ‘이, 히, 리, 기’로 구현되는 함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규칙에 타동사 ‘잡’이 피동화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33)과 같다. 여기서 한국어 v-tr-pass 유형은 앞서 영어에서처럼 목적어가 ‘affected’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피동어휘규칙은 (34)와 같은 적절한 피동문을 생성하게 된다. 접미사 피동의 경우 위의 예문처럼 행위자가 여격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격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이것은 예문 (36)처럼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행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어휘규칙 (32)을 적용한 결과로 NP[dat]를 선택적으로 하는 피동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sup>9)</sup>



9) 후자의 경우 행위자가 ‘에 의해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체적인 형식화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35) a. ??그 책이 존에게 쓰이었다.  
 b. ??그 줄이 존에게 잘리었다.  
 c. ??내 이름이 존에게 적히었다.
- (36) a. 그 책이 쓰이었다.  
 b. 그 줄이 잘리었다.  
 c. 내 이름이 적히었다.

### 3.2. '지다' 피동문

접미사에 의한 피동문 생성과 함께 조동사 '지다'에 의한 피동문 형성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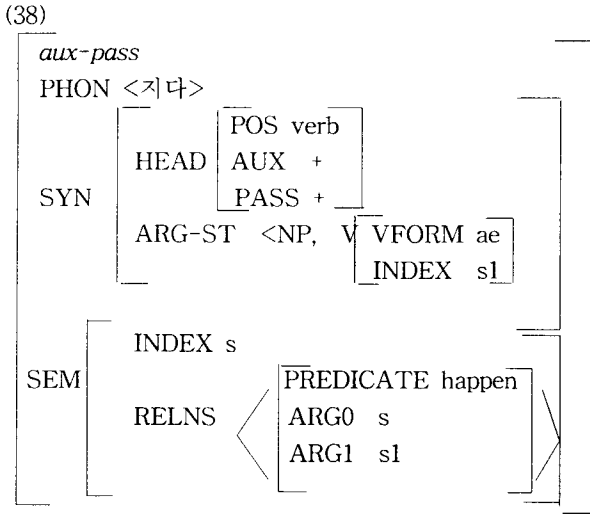
- (37) a. 그 사실이 널리 알려 졌다.  
 b. 종이가 찢어 졌다.  
 c. 문제가 학생들에게 주어 졌다.  
 d. 줄이 끊어 졌다.

이러한 피동형태는 여타 조동사 구조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37)에서처럼 본동사는 '-아/어' 형태이어야 한다는 점이나,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 본동사와 '지다'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룬다는 점 등에서 조동사 구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조동사적 성격을 반영하여 조동사 '지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어휘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sup>10)</sup>. (38)의 어휘 정보에 따르면 조동사 '지다'는 자질 [PASS +]에 의해서 피동구문을 촉발하며, 통사적으로 능동형 타동사와 결합하고, 이 때의 의미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시한다.<sup>11)</sup> 즉 여기서는 복합술어 분석과 같이 통사적으로 피동조동사 '지다'가 능동타동사와 결합하여 정형의 통사적 표현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sup>12)</sup>.

10) 조동사 '지다'는 PASS자질을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로 분류한다. PASS자질을 갖지 않는 경우는 순수 보조 역할을 하는 조동사로 피동형 VFORM을 논항으로 갖는다.

11) 자질 PASS는 피동화되는 모든 어휘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자질이다.

12) 김종복(2004)에서는 '지다'를 단순한 복합술어의 보조동사로 취급해서 PASS자질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다'가 주어 논항과 어휘적 논항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김종복은 어휘적 논항에 PASS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본고는 '지다' 자체가 PASS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경동사 피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두요소가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핵어 어휘 규칙(Head-Lex Rul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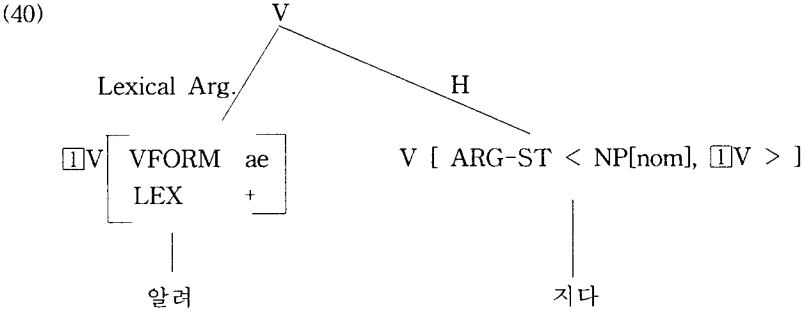
(39) Head-Lex Rule

$$X \begin{bmatrix} \text{hd-lex-ex} \\ \text{LEX +} \end{bmatrix} \rightarrow [1] [\text{LEX +}, \text{H}[\text{COMPS}<[1]>]]$$

위 규칙은 기본적으로 핵어가 어휘적인 [LEX +]요소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 이 두요소가 결합하게 되면 정형의 통사적 구성소 hd-lex-ex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HEAD-Comp-Rule과는 달리 어휘적 보충어와 결합하여 또 다른 어휘적 [LEX+] 자질을 가진 통사 표현을 생성하도록 허용한다. 이처럼 구조 (40)과 같이 피동조동사 '지다'가 어휘적 논항인 능동타동사 '알려'와 결합하여 정형의 head-lex-ex를 형성하게 한다. 이처럼 '지다'가 다른 조동사처럼 head-lex-ph를 이루어 복합 타동사 술어를 만들기 때문에 능동타동사가 자신의 논항구조와 결합할 수 없다.

즉 피동화 과정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피행위자가 주어로 나타나며 행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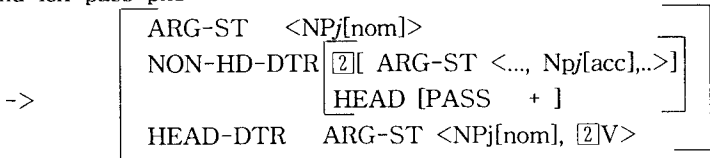
지다. 자세한 것은 김종복(2004)를 참조.



- (40-1) a. 정부가 그 사실을 널리 알리었다.  
 b. 존이 종이를 찢었다.  
 c.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었다.
- (40-2) a. \*정부가 그 사실을 널리 알리어 졌다.  
 b. \*존이 종이를 찢어 졌다.  
 c.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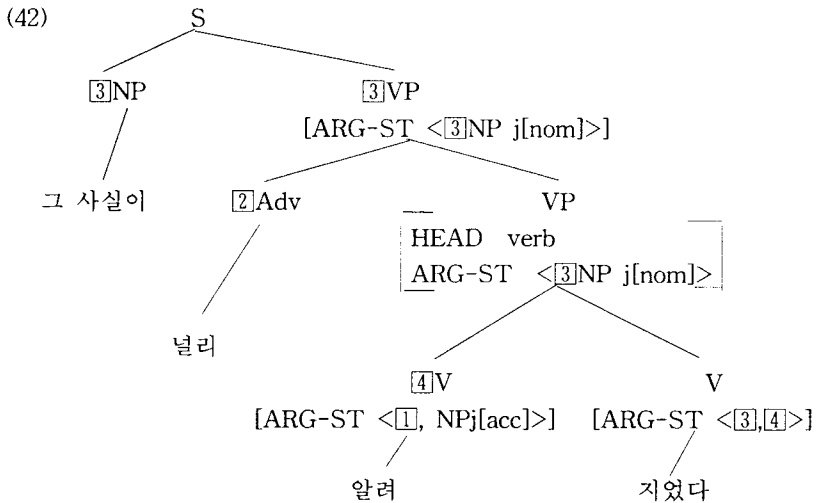
위의 예문처럼 조동사 ‘지다’의 피동문에서는 행위자 주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피행위자 목적어는 주어로 상승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제약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head-lex-ph의 한 하위 유형으로 취급한다.

(41) hd-lex-pass-ph1



위 (41)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지다’ 조동사가 본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그 결과는 본동사 목적어만 주어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수형도로 그려보면 (42)와 같다.

요약해 보면 ‘지다’피동문은 (38)의 어휘정보를 가진 ‘지다’가 (39)의 규칙에 의하여 능동타동사와 결합하여 (41)의 유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3.3. 경동사류 피동문

한국어 피동문의 또 다른 경우는 서술명사(verbal noun)와 ‘당하다, 받다, 되다’와 같은 경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 (43) a. 철수가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 b. 철수가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 c. 철수가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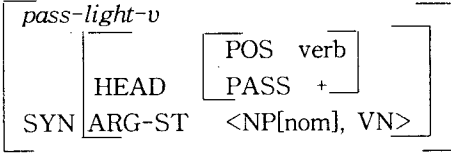
(43)의 예들은 각각 다음 (44)와 같은 상응하는 능동사형의 경동사 구문을 가지고 있다.

- (44) a. 친구들이 철수를 모욕(을) 하였다.
- b. 친구들이 철수를 존경(을) 하였다.
- c. 경찰이 철수를 체포(를) 하였다.

(43)과 같은 피동문의 경동사를 (44)의 ‘하다’ 경동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들을 pass-light-v로 유형화하고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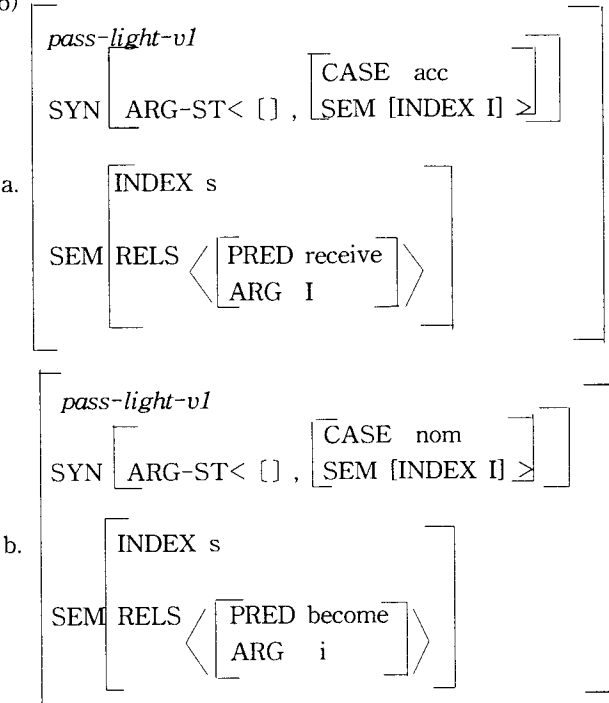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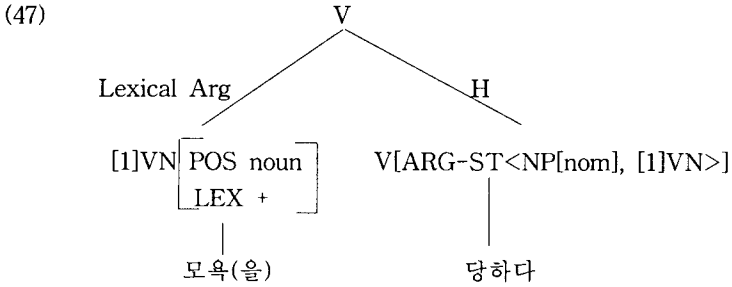


위 (45)유형은 서술명사의 격과 의미에 따라 ‘당하다, 받다’의 경우와 ‘되다’의 경우를 *pass-light-v1*와 *pass-light-v2*로 구분하고 이들의 제약은 다음 (46)과 같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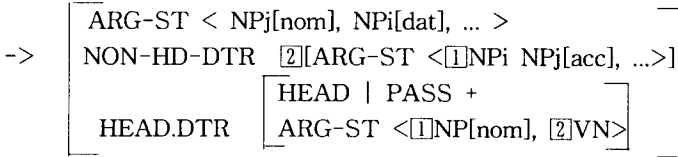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당하다, 받다, 되다’ 피동 경동사들은 (39)에 따라 ‘하다’ 경동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서술명사(VN)과 결합하여 다음 (47)과 같이 head-lex-ph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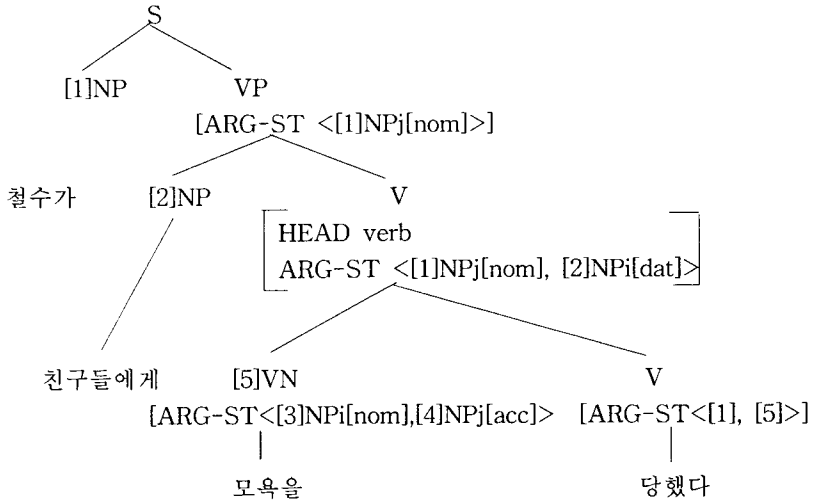
‘지다’ 피동구문과 마찬가지로 피동화 과정을 통해 상속되는 논항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즉 서술동사의 행위자 주격은 여격으로 나타나고 피행위자가 주격이 된다. 따라서 논항구조의 차이를 (41)의 피동구문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포착할 수가 있다.

제약(48)이 의미하는 것은 ‘당하다, 받다, 되다’와 같은 동사들이 서술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서술동사의 논항구조가 피동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명시해 준다.

(48) hd-lex-pass-ph2



(49)



#### 4. 결론

본 고에서 다루는 영어와 한국어의 피동구문은 논항구조를 어휘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어휘 정보, 어휘 규칙, 통사적 정보 및 의미, 화용적 정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들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인 속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영어에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주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여 “affected”자질을 부여함으로써 피동구문의 체계적 분석을 유도하였다. 영어 피동구문의 기본 속성과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피동구문의 속성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접미사 피동구문의 경우는 피동접사가 논항의 문법적 역할을 바껴게 함으로 어휘규칙만으로 기술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다’피동구문과 경동사류 피동구문은 어휘규칙과 통사규칙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김종복(2004)은 ‘지다’ ‘받다’ ‘당하다’등등을 순수보조 동사로 여겨 PASS이 없고 본동사가 PASS자질을 갖고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함과 다르게 본고는 피동보조동사로 여겨서 PASS자질을 갖고 대신에 본동사가 PASS자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언어학적으로나 전산학적 유용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유의

(meaningful)하는지는 점검하지 못했다. 다만 본고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발견되고 있는 피동구문의 현상을 언어학적이거나 전산학 측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예외적 자료들을 감안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명윤. (1997). 한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 현상의 소형구절구조 이론적 접근. *어학연구*, 33(1), 79-100.
- 김종복. (2004). 조동사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언어연구*, 40(1), 195-226.
-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 김종복. (1996). 한국어 어휘형성과정의 어휘론적, 제약적 접근. *언어연구*, 14, 91-112.
- 박양규. (1990). 피동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93-499
- 이익환. (1981). 영어의 수동구문과 문태규 문법. *어학연구*. 17(2), 215-225.
- Bratt, Elizabeth. (1996).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resnan, Joan. (1982). The Passive in Lexical Theory. In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 Chung, C. (1998). Argument composition and long-distance scrambling in Korea: an extension of the complex predicate analysis.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Syntax and Semantics*, 30. San Diego: Academic Press, 159-220.
- Kim, A. H. (1985). *The Grammar of Focus in Korean Syntax and Its Typological Implic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 Manning, Christopher, Ivan A. Sag, and Massayo Iida. (1999). The lexical integrity of Japanese causatives. In Levine and Green (eds.) *Studies in contemporary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ing, C., Sag, Ivan A. (1998). Argument Structure, Valence, and

Binding.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Nagai, N. Complex passive and major subjects in Japanese. *Linguistics*, 29. 1053-1092.

Pollard, C. & Sag, I.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g, Ivan A. and Thomas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Webelhuth, Gert. (1998). Causatives and the nature of argument structure. In *Syntax and Semantics 30: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Academic Press.

Wechsler, S. (1995). *The Semantic Basis of Argument Structure*. Stanford: CSLI.

이남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전화: (062)230-7325

이메일: nglee@mail.chosun.ac.kr

Received: 30 Jun, 2005

Revised: 12 Sept, 2005

Accepted: 15 Sept, 2005